

히스패닉사회의 이해

마지막 마당
미국 내 히스패닉

담당교수: 이재학

미국 내 히스패닉

- 미국 내 최대의 소수인종
- US. Census Bureau(2008년)
 - => 미국 전체인구의 13% (흑인 11%, 아시아계 5%)
- 히스패닉의 출산율, 미국의 인종집단 중 가장 높음
 - => 히스패닉 2.99명, 흑인 2.13명, 아시아계 2.04명, 백인 1.87명 (2008년)
 - => 히스패닉들의 높은 소비성향
- 미국 남서부의 많은 도시(LA, 휴스턴, 산안토니오, 달라스, 피닉스 등)에서 전체 인구의 30%이상 차지
- 일부 도시는 50% 이상 차지
- LA 인구의 50% 이상이 히스패닉
 - => 불법 체류자 통계 제외된 수치

히스패닉의 팽창

- 일부 남서부주의 도시에서 히스패닉 인구 전체의 90% 넘는 경우도 있음
- 스페인어의 공용어화
- 2050년 전체 인구의 25% 차지할 것으로 예상 (9500만명)
- 반면 백인은 전체인구의 53%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(or 히스패닉 29%, 백인 47%)
- 멕시코계, 쿠바계, 푸에르토리코계, 콜롬비아계 등 다양한 출신성분으로 구성=> '스페인어'라는 공용어로 뭉쳐짐
- 히스패닉 (hispanic/hispano), 라티노 (latino), 치카노 (chicano) 등 정체성에 따른 다양한 명칭 사용
- 백인들의 출산기피, 히스패닉의 다산, 끊임없는 불법이민자들(mojados)의 유입

히스패닉의 정치적 영향력 급증

- 2012년, 미 역사상 처음으로 백인 신생아 비율 50% 미만으로 감소 (신생아는 비백인이 다수)
- 40년 내, 현재의 소수인종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
- 백인의 노령화 가속
- 공화당의 위기감 (“너무 늙고 백인과 남성 편향”)
- 미국 정치지도의 근본적 변화
- 2012년 11월 미국 대선, 비백인 몰표로 오바마 승리
- 인종선거 심화
- 히스패닉 71%, 아시아계 73%, 흑인 93%가 오바마 투표
- 백인 유권자는 롬비에 몰표
- 2000년 이후 대선에서 히스패닉 표의 중요성 증대
- 등 돌린 히스패닉 표심 잡으려 ‘히스패닉 부시’ 조지 프레스콧, 차기 후보 거론(어머니 멕시코 출신, 스페인어 능통)

미국 내 히스패닉의 미래

- 2003년 현재 미국 내 외국어 수강 대학생 중 약 70%가 스페인어 수강
- 히스패닉들 특유의 가족중심 문화, 문화적 · 언어적 폭발력
- 히스패닉의 정치 · 경제적 영향력 날로 높아짐
- '미국에 보내어진 트로이의 목마'
- 미국 내 인종집단 중 소비성향 가장 왕성,
- 경기침체에 영향 안 받는 히스패닉 구매력